

# 조선후기 익산 담은 고문헌 번역 발간

익산시·원광대 한문번역연구소, 세 번째 익산문헌자료총서 '금마일기·유금마성기, 금마별가'

조선 후기 고도 익산의 생생한 모습을 그려낸 고문헌이 번역발간돼 고도 익산 연구 지평을 확대했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는 조선 후기 익산기록을 담은 '금마일기와 유금마성기, 금마별가'를 번역해 세 번째 익산문헌자료총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문헌들은 일기, 기행문, 시 등 다양한 장르로 조선후기의 고도 익산의 모습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전하고 있다.

금마일기(金馬日記)는 조선 후기 익산 군수를 지낸 정규역이 1896년 3월 부임후 겪었던 다양한 업무처리와 일상사를 기록한 14개월간의 일기다. 수령으로서 해결해야 할 세금 징수, 아전 관리, 각종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또한 수령을 도와서 군정을 처리하던 면일과 존동, 풍수, 검독, 주비, 풍헌 등의 직책은 조선후기 행정의 일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유금마성기(遊金馬城記)는 조선 선비 강후진이 1738년 가을, 기준성 등 익산 금마의 고적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는 조선 후기 익산기록을 담은 '금마일기와 유금마성기, 금마별가'를 번역해 세 번째 익산문헌자료총서를 발간했다.

을 답사하고 남긴 기록이다. 그는 고조선과 기자조선, 마한과 고려의 옛 도성에 관한 문헌자료를 정리하고, 실제 답사한 기행문(와유록)을 저술하였는데, 유금마성기는 그 중 일부이다. 답사기에 의하면 강후진은 익산 금마를 마한의 시조 무강왕 기준이 세운 마한의 중심도읍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준성과 왕궁리유

적, 미륵사지, 쌍릉 답사는 기준왕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금마별가(金馬別歌)는 조선후기 최고 시인 석복 신광수의 시집으로서, 익산군수 남태보를 떠나보내며 애달파하는 익산군민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읊은 시 32수가 실려 있다. 이 시는 단순히 군수의 칭송만이 아니라 당시의 현실 비판과 애민 의식, 우국충정 등의 정서를 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익산시와 원광대 한문번역연구소의 총서 발간은 2019년(익산문헌자료총서1)의 금마지, 2020년(익산문헌자료총서2)의 여산·용안·함열읍지에 이어 세 번째이다. 지난 10월 초 그동안의 고문헌자료 번역사업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고문헌 학술포럼(2021.10.7.)을 개최한 바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향후 지속적인 익산의 문헌자료 발굴과 번역서 발간 작업에 힘을 쏟는 한편,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문화 도시 익산의 가치 확산을 위한 스토리텔링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 남원다움관, 한복문화주간 특별전시

일제강점기~현대 이르는 남원여성 삶 한복이라는 '일상'과 연계

남원시는 2021 한복문화 '겨울' 주간에 맞아 지난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통사람들의 우리 옷 '한복' 이야기를 남원의 근현대기록을 모아둔 남원다움관에서 '짓:다?' 특별기획전으로 열고 있다.

'짓:다?'는 이야기와 맥락이 살아있다는 평을 받았던 남원다움관 상반기 특별전시 '천의 기억, 짓:다'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로,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남원여성의 삶을 한복이라는 '일상'과 연계하여 풀어내었다.

이번 전시는 남원여성의 삶과 의복의 맥락을 연결하는 것으로, 1920~30년대 일제강점기라는 현실 속에서도 주체적 삶을 꿈꾸며 근대사상을 의복에 반영하였던 신여성상을 통해 개화기 이후 변화된 한복 형태와 의생활 변화에 투영된 여성문화의 보편성을 남원지역의 생활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남원 대표관광지인 광한루원, 남원에촌



인근에 위치한 '남원다움관'(남원시 검멀길 14)은 남원의 근현대 기록전시 및 각종 체험콘텐츠를 갖추고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남원시 양인환 관광과장은 "특별전을 통해 한복이 곧 일상복이었던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 다음 세대에 전승함으로써 '한복'이 특별함이 아닌 일상의 문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도청도서관, '동네서점과 작가와의 만남' 개최

전북 연구 박예분 작가·유정 시인 초청

전북도청도서관(관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이 오는 11월 24일과 25일 오후 2시 익산시에 있는 원서점에서 '동네서점과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한다.

전북도청도서관은 유망한 전북 연구작가를 도민에게 알리고, 친체 중인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동네서점과 작가와의 만남을 추진해왔다. 올해 동네서점과 작가와의 만남은 2회차로 진행된다.

남녀노소 모두 즐겁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작가특강(아동문학과 함께하는 이야기 여행, 동시와 동요의 아름다운 만남)과 더불어, 생동감이 넘치는 동화구연,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 낭송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행사의 첫 번째 초청 작가인 박예분 작

가는 현재 전북아동문화회장과 스토리창작지원센터 대표를 겸임 중이다. 최근 동화 '부엉이 방귀를 찾아라', 그림책 '달의 신랑감은 누구일까?'의 다수를 썼으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초청 작가는 유정 시인이다. 동시 '빛방울 목걸이' 외 2편으로 제33회 전북아동문학상을 수상했고, 동시집 '별처럼 꽃처럼'을 출간했다. 현재 한국아동문학회, 전북문인협회, 동심문화회 회원으로서 전북도 아동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편, 행사가 진행되는 원서점(익산시 무왕로 1002)은 지난 2020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향토서점이다.

최찬희 원서점대표는 "이번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서점이 문화융성의 진원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교육청, 학생 교육공감전 개최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다양한 미술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19~25일 전주교육문화회관 1층 공감전시실에서 '2021 학생 교육공감전(展)'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중등미술교육연구

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올해 전북 중등미술실기대회 금상 수상자들의 작품이 선보인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비판·창의적 사고를 표현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전북중등미

술실기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학교 대회는 비대면 공모전 형식으로, 고등학교 대회는 대면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상상화, 판화, 일러스트레이션, 포스터, 만화, 서예, 소묘, 문인화, 수채화, 유채화, 기초디자인, 조소 등의 분야에서 총 41점을 만나볼 수 있다.

/장은성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소리 솔솔 부는 바람' 정기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민속음악 장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2021기악단 정기공연 '소리 솔솔 부는 바람'을 오는 24일 오후 7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18년 이후 오랜만에 선보이는 정기공연으로, 창극 및 무용반주 등 다방면으로 우수한 기량을 선보여 온 기악단이 그간 쌓아온 본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연으로, 기존에 전승되는 민속음악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된 6곡을 선보인다.

해서용석 명인의 '꽃 피는 새동산'과 '신사철거'를 기반으로 새롭게 구성된 '사계절의 노래'(구성 박지용)로 첫 문을 열고, 이어 경기 지역 무악을 바탕으로 구성된 '바라옵기는...염원'(구성 조옥선)과 춘향이 똥똥을 향한 마음

을 기악곡으로 표현한 '회상가'(구성 박원배)가 이어진다.

이날 공연 중 유일한 독주곡인 '박선호류 해금산조'(구성 박선호)는 해금연주자 박선호만의 음악세계를 표현한 해금독주를 들을 수 있고, '걸음마다 꽃이 피소'(구성 김승정)는 남도곳의 다채로운 선율과 구름기락을 기악화하였으며, 대미를 장식할 '태평'(구성 허진)은 경기계 태평소 선율을 중심으로 구성된 곡으로 '승무'가 함께 무대에 올라 눈과 귀가 함께 즐거운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자세한 공연정보는 국립민속국악원 전화(063-620-2329) 또는 카카오톡 채널(국립민속국악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객석 띄어앉기로 운영되어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 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문화재단, 전주 신진예술가 3인 무대공연 개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을 통해 젊은 예술가 3인의 무대공연을 잇따라 선보인다.

성악가 김경은은 아동뮤지컬 '오랏차차 러글리'를 20일 오후 5시 우진문화공간에서 선보인다. 코로나 시대에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인해 순수한 동심을 잃어가는 아이들과 미래에 사는 고양이 '러글리'가 만나 어른들의 거짓말을 밝혀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타리스트 박경재는 'Electric City, 전주'라는

제목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Electric City, 전주'는 전통의 도시, 전주에 음악으로 오늘의 색을 입히는 현대적인 채색 콘서트로, 24일 오후 7시 한복문화관에서 펼쳐진다.

한국무용가 박지원은 '솔'이라는 무용공연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마스크 안에서 쉬는 숨을 다양한 시각으로 조망하고, 이를 춤사위로 풀어낸다. '솔'은 27일 오후 5시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린다. /정은성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